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기획·편집 | 사회봉사센터
인쇄발행일 | 2026년 2월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로1
목양관 115호 사회봉사센터
전화번호 | 041) 550-0891~2

사회봉사센터홈페이지
<http://volunteer.bu.ac.kr>



<http://volunteer.bscu.ac.kr>



백석사회봉사단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1004bong/>



발행처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사회봉사센터

CONTENTS

발간사

04 사회봉사를 통한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석인

Baekseok Volunteer
백석볼런티어

다온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

Vol.21

06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07 2025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09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
11 사회봉사 교과목 우수사례
13 사회봉사 인증제 안내
14 사랑의 헌혈 운동 안내
15 해외봉사 안내

에그리나
백석사회봉사단

20 백석사회봉사단 소개
21 백석사회봉사단 상징
22 18기 백석사회봉사단을 추억하며
24 시리얼 임원진들의 한마디 (제18기 임원들)
26 18기 백석사회봉사단 단원 소개
28 3월 OT 서로를 믿고, 더 나은 내일로
29 4월 첫 기획봉사,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하루
32 5월 노래하고, 만들고, 웃고, 어르신들과 함께한 하루
34 6월 포도잎 너머 전해진 온기, 감자밭에 새겨진 농촌봉사 이야기
36 9월 OT 나눔의 첫걸음, 가슴 뛰는 첫 만남!
37 10월 작은 손길이 만든 큰 온기, 연탄봉사로 나눈 따뜻한 하루
40 11월 손 끝에서 피어난 즐거움, 함께한 죽전원 봉사
42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
44 18기 기획분과 소감
45 이벤트분과 활동 내용
47 18기 이벤트분과 소감
48 18기 사무분과 소감
49 1학기 정기봉사
54 2학기 정기봉사
60 12월 함께 만들어낸 우리들의 시간
61 볼런티어 기자단 에디터

사회봉사를 통한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석인

사회봉사센터 소장

김 욱 교수

2025년 한 해도 백석학원과 사회봉사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석인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전심으로 참여해 준 백석사회봉사단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1년 동안 행한 여러분의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기록한 사례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백석사회봉사단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이 연계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5개 팀을 구성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매주 찾아가 정기봉사를 하고, 시기별·지역별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주기 위한 기획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더위에도 손길이 필요한 농촌지역의 봉사활동, 추운 겨울에는 따스한 연말이 되도록 연탄 배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봉사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차원의 사랑의 기프트 박스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정신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이웃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 백석인으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사회봉사단을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는 보다 넓게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매 학기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과 재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이외에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그리고 해외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완성과 기독교적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센터는 봉사가 필요한 곳, 봉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통해 봉사활동 활성화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석문화대학교·백석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소장 김 욱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 - 다 온

Baekseak Volunteer Vol.21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06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07	2025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09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
11	사회봉사 교과목 우수사례
13	사회봉사 인증제 안내
14	사랑의 헌혈 운동 안내
15	해외봉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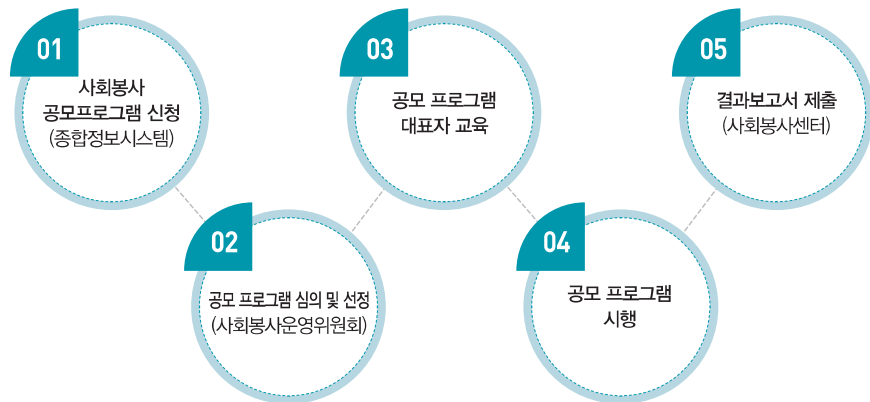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우리대학의 건학 이념인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을 실천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기 단위의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회봉사센터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안내

신청기간	매 학기 공고 기간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
신청자격	재학생 및 교직원, 학부(과), 동아리, 소모임 등
봉사지역	충청경가서울지역
봉사영역	전공연계봉사, 사회복지시설 / 기관봉사, 지역사회봉사 등
지원내역	프로그램별 봉사 운영경비 지원(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

프로그램 지원절차



2025-1학기 백석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순번	학부 및 동아리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기관
1	간호학과	안영미	BNVP(Baekseok Nurse Volunteering Program)	선한의료포럼
2	사회복지학부	강기정	다인 (노인대상 봉사활동)	중앙노인재가복지센터
3	RCY	박철웅	RCY 현월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4	사회복지학부	김 옥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5	사회학부	이가영	도담도담체육교실(장애아동체육교실)	백석대학교
6	보건학부	황수진	징검다리(경로당봉사)	신안동 경로당(천안시자원봉사센터)
7	간호학과	윤순영	힐링핸즈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1
8	사범학부	김정현	중등인지학습실	백석대학교
9	사범학부	구교만	장애인성인배드민턴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10	사범학부	김주혜	초등 인지학습실	백석대학교
11	보건학부	이기훈	동행	천안지역아동센터
12	사범학부	양한나	운동발달클리닉	백석대학교
13	관광학부	이향정	아름다운여정 시즌4	아름다운동행요양원
14	사범학부	김영성	좌식 배드민턴 봉사	천안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15	간호학과	윤미선	사랑 나눔 간호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16	사범학부	서민경	징검다리 유아반 프로그램	백석대학교
17	사범학부	박병숙	징검다리 영아반 프로그램	백석대학교
18	스포츠과학부	박정숙	노인건강프로그램	중앙노인재가복지센터
19	보건학부	정희승	1대1 맞춤형 학습 지도	백석대학교
20	모가세	김승용	발달장애인 대상 봉사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랑의복지관
21	사회복지학부	백경원	수원 YWCA	수원YWCA
22	사회복지학부	이은정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굿네이버스 세종충남사업본부
23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인지강화 프로그램	통라이프그린케어 외 3
24	보건학부	정성훈 심재훈	근골격계질환 재활/교정 클리닉	백석대학교
25	사회복지학부	조성우	클로버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6	기독교학부	권선영	모해 (청소년 거리상담 및 학습멘토)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1
27	외식산업학부	최성기	더 공간 하늘꿈이자라는집 봉사	하늘꿈이자라는집
28	관광학부	김화연	미소나래	휠케어주간보호센터
29	외식산업학부	서강태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디딤돌지역아동센터
30	모가세	강반석	모가세	수원YWCA

2025-1학기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순번	학부 및 동아리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기관
1	호텔외식조리학부	정영자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디딤돌지역아동센터
2	간호학과	한숙원	2025 1학기 TOSS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봉사활동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3	간호학과	구정아	힐링터치 봉사활동	중앙노인재가복지센터
4	간호학과	오은희	오래 기억될 은혜와 희망의 손길	은솔노인주간보호센터
5	간호학과	범은애	카르페디엠-지역사회봉사	행복드림요양원
6	방사선과	천혜경	빛바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7	사회복지학과	권향임	나보다 나를 귀하게	가독성심원
8	간호학과	황성우	2025 H.O.P.E 들꽃재가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	들꽃재가노인복지센터

2025-2학기 백석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순번	학부 및 동아리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기관
1	RCY	박철웅	RCY 헌혈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2	보건학부	정희승	1대1 맞춤형 학습 지도	백석대학교
3	사회복지학부	김 욱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4	간호학과	윤순영	힐링헨츠	천안시장에인종합복지관 외 2
5	간호학과	안영미	BNVP(Baekseok Nurse Volunteering Program)	선한의료포럼
6	보건학부	예기훈	동행	마루지역아동센터 외 5
7	보건학부	서해림	바른재활실버봉사 (주간보호센터 봉사)	효어르신주간보호센터 외 2
8	사범학부	구교만	장애인 성인 배드민턴	천안시장에인종합체육관
9	사범학부	서민경	징검다리 유아반 프로그램	백석대학교
10	사범학부	이기영	도담도담체육교실(장애아동체육교실)	백석대학교
11	스포츠과학부	서진희	노인건강프로그램	중앙노인재가복지센터
12	사회복지학부	강기정	다인 (노인대상 봉사활동)	중앙노인재가복지센터
13	사범학부	김준식	또마기체육교실	백석대학교
14	사범학부	박병숙	징검다리 영어반 프로그램	백석대학교
15	사범학부	김정현	중등인지학습실	백석대학교
16	사범학부	김영성	좌식 배드민턴 봉사	천안시장에인배드민턴협회
17	사범학부	양한나	운동발달클리닉	백석대학교
18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어르신 인지 및 근력 기능 향상 프로그램	실버스타 외 2
19	사회복지학부	박자경	인지기능 강화 및 소근육 강화프로그램	음봉산동중합사회복지관 외 1
20	사범학부	김주혜	초등 인지학습실	백석대학교
21	모가세	강반석	수원 YWCA	수원YWCA요양원
22	모가세	김승웅	강남 사랑의 복지관	사랑의복지관
23	사회복지학부	백경원	나의 기억조각을 찾아	통라이프그린케어 외 1
24	보건학부	정성훈 심재훈	근골격계질환 재활/교정 클리닉	백석대학교
25	가독교학부	권선영	모해 (청소년 거리상담 및 학습멘토)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1
26	관광학부	이향정	아름다운 여정 시즌5	아름다운동행요양원
27	사회복지학부	이은정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프로그램	굿네이버스 세종충남사업본부
28	간호학과	윤미선	사랑 나눔 간호	천안시직장암지원센터
29	관광학부	김화연	미소나래	엘케어주간보호센터
30	사회복지학부	고기숙	「나비의 꿈: 감정과 삶을 가꾸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나비의꿈
31	스포츠과학부	한창효	신체활동과 재활운동	아름다운동행요양원

2025-2학기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순번	학부 및 동아리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기관
1	간호학과	범은애	카르페디엠-지역사회봉사	천안행복드림요양원
2	사회복지학과	전주원	백석 지역아동 인성교육프로그램	새솔지역아동센터
3	간호학과	한수원	2025 2학기 TOSS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봉사활동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호텔외식조리학부	정영자	C.A.T	다담돌지역아동센터
5	간호학과	황성우	2025 H.O.P.E 들꽃재가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	들꽃재가노인복지센터 외 1
6	간호학과	구정아	힐링터치 봉사활동	중앙노인재가복지센터
7	사회복지학과	권향임	나보다 나를 귀하게	기독교성심원
8	방사선과	정화원	도란도란	도란도란노인복지센터
9	간호학과	김현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란도란)	도란도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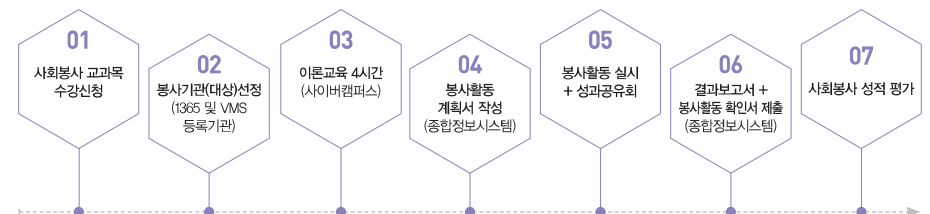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요

교과목 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학점	1학점 (19학점 이외 추가로 신청 가능)
구분	교양선택
신청대상	사회봉사1 : 사회봉사 교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재학생 사회봉사2 : 사회봉사1 이수자
운영방법	총 30시간 이수 (이론 교육 4시간 + 봉사활동 26시간)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평가방법	PASS / FAIL 평가
봉사활동기관	사회봉사시설 및 단체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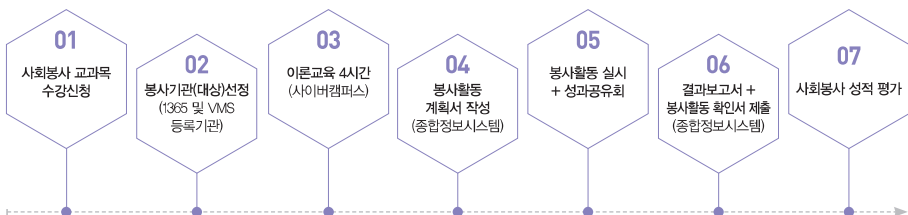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요 】

교과목 명	대학생과 사회봉사
학점	2학점
구분	교양선택
신청대상	재학생 (1회에 한함)
운영방법	총 30시간 이수 (이론 교육 4시간 + 봉사활동 26시간)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학부(과) 사무실에서 신청
평가방법	PASS / FAIL 평가
봉사활동기관	사회봉사시설 및 단체

【 운영절차 】



사회봉사 교과목 우수사례



【 사례 1 】

사회봉사 교과목 결과보고서	
과목	사회봉사 1
봉사기간	2025.04.05. ~ 05.24.
총 시간	48시간
봉사기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활동내용 및 소감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소양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 활용법을 배우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안내를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바탕으로 물놀이 안전 봉사활동과 수상구조사 자격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의 책임감과 응급 대처 및 상황 판단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침착한 판단력과 팀워크에 대해 학습하고 알고 닦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 또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봉사 교과목 결과보고서	
과목	사회봉사 2
봉사기간	2025.05.20. ~ 06.05.
총 시간	27시간
봉사기관	(사)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당꿈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당청소년센터, 상도4동주민센터,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행운동주민센터
활동내용 및 소감	이번 학기 사회봉사2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총 6기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선거 안내 봉사를 직접 해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선거 안내 봉사는 평소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동선을 안내하고, 투표 절차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선거 문화의 중요성과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안내 업무가 반복적이고 긴 대기 시간이 많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이룬 것 같아 뿌듯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청소 봉사도 처음으로 참여해 보았습니다. 환경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 보니 저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청소 작업은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전문 청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참여해 본 덕분에 환경미화의 소중함과, 일선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케이컬쳐 박물관에서의 봉사였습니다. 이 박물관은 다화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로, 제가 참여한 축제 중 처음으로 일회용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화용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수거 및 세척을 도우면서 환경 보호의 실질적인 실천이 축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축제의 취치가 매우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회봉사2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경험하며, 각 활동의 의미와 제 적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례 2 】

사회봉사 교과목 결과보고서	
과목	대학생과 사회봉사
봉사기간	2025.04.22. ~ 05.29.
총 시간	31시간 20분
봉사기관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활동내용 및 소감	저는 이번 봉사활동을 수원시 광고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순천향대학교 병원, 단대 병원에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장애인분들이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과 너무 다르고 아프기 때문에 상식 밖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장애인센터에 봉사를 진행하면서 이는 저의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귀엽다는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순천향대와 단대에서 봉사를 진행하면서 아픈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을 도우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를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길을 모르시는 환자분들을 안내해 주며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실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소중한 직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나중에 간호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평생에 도움이 될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꾸준히 봉사를 진행하면서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봉사 교과목 결과보고서	
과목	대학생과 사회봉사
봉사기간	2025.03.08. ~ 05.09.
총 시간	28시간
봉사기관	아산시중앙도서관, 아산장영실과학관, 온양요양원
활동내용 및 소감	온양요양원에서 3시간 동안 환자들의 침상을 욱스로 청소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무서웠지만 환자분들이 말을 계속 걸어 주셔서 재밌게 봉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처음 간호사가 되어도 병원 환경을 너무 낯설어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산시 중앙도서관에서 자료실 도서 정리, 업무 보조, 민원 응대, 환경 정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 정리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지만,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며 체계적인 정리 방법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보람찬 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장영실과학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진로와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와 전시관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며, 특히 주말마다 과학관을 찾는 많은 어린이들과의 만남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호기심과 순수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똑딱똑딱 공작소에서의 체험 안내는 아이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느끼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자원봉사자로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도와주며,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 안내식, 그리고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이번 경험은 어린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 간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 얻은 보람과 성취감은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인간적인 성장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봉사 인증제 안내

사회봉사 인증제는 **바른 인성(人性)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총장 명의의 사회봉사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백석대학교 】

사회봉사 인증제는 사회봉사 교과목인 〈사회봉사1〉,〈사회봉사2〉를 이수하고 입학 시점부터 8학기(4학년 2학기)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학생에 대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 인증서수여

〈사회봉사1〉과
〈사회봉사2〉 수강

총 봉사시간 8학기
(4학년 2학기)까지
200시간 이상

【 백석문화대학교 】

사회봉사 인증제는 사회봉사 교과목인 〈대학생과 사회봉사〉를 이수하고 2년제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4학기(2학년 2학기)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70시간 이상, 3년제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6학기(3학년 2학기)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 4년제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8학기(4학년 2학기)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학생에 대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 인증서수여

〈대학생과 사회봉사〉 수강

2년제 : 4학기까지 총 70시간 이상
3년제 : 6학기까지 총 100시간 이상
4년제 : 8학기까지 총 140시간 이상

사랑의 헌혈 운동 안내



교내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통하여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여, **교내 봉사**와 **기부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하고
재학생과 교직원의 헌혈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개요 】

기간	학기 중 3회 진행 (학기 초 대학 홈페이지 공지)
장소	진리관 앞
대상	재학생 및 교직원
봉사시간	5시간 인정 (헌혈증 기증 시 3시간 추가인정)
협력기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

【 봉사시간 입력 방법 안내 】

봉사시간	사랑의 헌혈 : 5시간 + 헌혈증 기증 : 3시간 = 총 8시간
봉사시간 입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사회봉사 ▶개인 사회봉사 등록 ▶신규버튼 클릭 ▶사회봉사 내용 작성 (※봉사기관 분류 : 헌혈, 봉사영역 분류 : 헌혈로 선택) ▶파일첨부버튼 클릭하여 헌혈 확인서 파일 업로드 ▶저장버튼 클릭 ▶제출버튼 클릭 ❖ 헌혈증 기증은 사회봉사센터 방문 제출 ※ 헌혈 확인서는 1365 / VMS 에서 발급 가능

해외봉사 안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사회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에 참여**하여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2025년 해외봉사 】

국가/지역 (인솔기관)	세부사항	활동일정	인원(명)
캄보디아 캄뎅스프 (코선)	- 활동분야 : 교육봉사, 특화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 청소년 한글/영어/보건, 교사 컴퓨터 교육 - K-POP, 미술, 예체능 및 실습형 교육 - SDGs (환경) 교육 - 노력봉사 - 학교 운동장 및 건물 시설 보수 - 마을 환경캠페인(플로깅 등 환경정비) - 문화교류 - 홈비지팅 및 현지 문화 배우기 - 현지 대학생 및 청년과의 교류 - 기타 :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 방문 및 멘토링 - 활동기관 : 톨건달 중학교 - 활동대상 - 중학생(3~16세) 325명 - 전공, 특기 우대사항 - 컴퓨터, 피부미용, 미술, 디자인, 간호학, 어학 전공자 - 재능기부 가능 경력자(미용, 토목/건축, 음악(악기)) 등 예체능 전공자 - 관련 분야 경험자	3차 교육(팀별) 2025.01.05.(일) ~ 01.06.(월)	1
		해외봉사활동 2025.01.06.(월) ~ 01.21.(화)	
몽골 바가노르 (아시아 프렌즈)	- 활동분야 : 교육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 한국어, 과학, 체육, 세계시민 교육 - 노력봉사 - 장애가정방문 - 문화교류 - 게르촌 홈비지팅 - 전통놀이 및 K-POP - 몽골 대학생과 지역사회 문제나눔 활동 - 기타 :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 방문 및 멘토링(KOICA 몽골 사무소 방문 및 현지 푸른아시아, 코피온 등 NGO 방문) - 활동기관 : 꿈나무센터 - 활동대상 - 취약계층 학생 (7~15세) 50여명 - 전공, 특기 우대사항 - 과학 과목 관련 전공자 - 몽골어 가능자 - 관련 분야 경험자	3차 교육(팀별) 2025.01.07.(화) ~ 01.08.(수)	1
		해외봉사활동 2025.01.08.(수) ~ 01.20.(월)	



[2025년 해외봉사]

국가/지역 (인솔기관)	세부사항	활동일정	인원(명)
라오스B 비엔티안 (밀크포라오)	- 활동분야 : 교육봉사, 특화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 SDGs 8 환경을 주제로 한 융합형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운영 - 예제능 기반 세계시민교육 활동 운영 - 노력봉사 - 학교 건물 도색 및 벽화 작업 - 학교주변 환경 개선 - 문화교류 - 홍비지팅 - 한국 - 라오스 대학생간 학생 교류 - 문화탐방 - 기타 :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 방문 및 멘토링 - 활동기관 : 나뭇 초학교 - 활동대상 - 중학생 100여명, 대학생 10명 - 전공, 특기 우대사항 -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 - 영어 가능자 - 영상 촬영 및 편집 가능자 - 관련 분야 경험자	3차 교육(팀별) 2025.02.01.(월) ~ 02.02.(일)	1
		해외봉사활동 2025.02.02.(일) ~ 02.12.(수)	
라오스B 비엔티안 (밀크포라오)	- 활동분야 : 특화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 SDGs, 다문화, 환경, 보건교육 콘텐츠 - 노력봉사 - 학교 개보수 활동 - 학교 및 주변지역 환경정화 - 문화교류 - 양 국가 문화 축제 - 대학생간 교류, 국제개발협력 현장 방문 - 활동기관 : 남팍초등학교 - 활동대상 : 초등학생 100여명 - 우대사항 -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전공의 단원 -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가능한 단원 -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단원 - 영상 촬영 및 편집 가능한 단원	3차 교육(팀별) 2025.07.20.(일) ~ 07.21.(월)	1
		해외봉사활동 2025.07.21.(월) ~ 07.31.(목)	
네팔 카트만두 (그린티쳐스)	- 활동분야 : 특화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 음악·미술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정서·사회성교육, 보건·체육교육, 세계시민교육 - 노력봉사 - 교실 환경 개선 - 교재교구 정비 및 제작 - 문화교류 - 장여가정 홈비지팅, KMC(Kathmandu Model College)와의 대학생 문화교류 - 국제개발협력 현장 탐방, 진로탐색 멘토링 - 활동기관 : RFCSID & SMK/B 지적장애 특수학교 - 활동대상 : 지적장애 학생 (8세~30세) 70여명 - 우대사항 - 특수교육 및 교육학 관련 전공자 - 예체능 특기자 - 영어 또는 네팔어 가능자	3차 교육(팀별) 2025.07.20.(일) ~ 07.21.(월)	1
		해외봉사활동 2025.07.21.(월) ~ 08.02.(토)	

국가/지역 (인솔기관)	세부사항	활동일정	인원(명)
몽골 비오름비나트 (전주시자원 봉사센터)	• 활동분야 : 특화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한국문화, 보건, 위생, 체육, 환경, 미술, 과학 — 노력봉사 학교 개보수 활동 환경캠페인 — 문화교류 양 국간 문화 축제 홍비지팅 프로그램, 대학생 토론회 및 문화교류, 캠퍼스투어, 진로탐색멘토링 • 활동기관 : 국립 10번 학교 • 활동대상 : 초중생 200여명 • 우대사항 —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열정을 가진 대학생 —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단원	3차 교육(팀별) 2025.07.20.(일) ~ 07.21.(월)	2
		해외봉사활동 2025.07.21.(월) ~ 08.04.(월)	
르완다 B 키갈리 (아프리카 미래재단)	• 활동분야 : 교육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생활밀착형 과학, 기술, 공학, 수학 / 기본교육 — 노력봉사 공원 미화 활동, 보건소 의료 소모품 나눔, 교육 환경 개선 — 문화교류 한국 전통놀이 소개 KOICA 르완다 사무소 방문 • 활동기관 : 나누리 메디컬, 빈야드 초등학교 • 활동대상 : 병원 환자 50명, 아동 270여명 • 우대사항 — 과학 및 수학 관련 전공자 —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자	3차 교육(팀별) 2025.07.20.(일) ~ 07.21.(월)	1
		해외봉사활동 2025.07.21.(월) ~ 08.02.(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안양시자원 봉사센터)	• 활동분야 : 교육봉사 • 활동내용 — 교육봉사 음악, 과학, 위생, 한글, 요리 — 노력봉사 학교 시설보수 플로깅 활동 — 문화교류 한국문화 체험부스 운영 가정방문 활동 및 진로탐색 • 활동기관 : WECA 어학당, 타발 직업 학교 • 활동대상 : 아동청소년 560여명 • 우대사항 — 노어 관련 학과 및 노어 가능학생 — 영상 촬영 및 제작 관련 학과 학생 — 한국어 및 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학과	3차 교육(팀별) 2025.07.21.(월) ~ 07.22.(화)	1
		해외봉사활동 2025.07.22.(화) ~ 08.01.(금)	

2025년 해외봉사



사랑하는 우리 사이 - **에그리나**

Baekseok Volunteer Vol.21

백석사회봉사단

20	백석사회봉사단 소개
21	백석사회봉사단 상징
22	18기 백석사회봉사단을 추억하며
24	시리얼 임원진들의 한마디 (제18기 임원들)
26	18기 백석사회봉사단 단원 소개
28	3월 OT 서로를 믿고, 더 나은 내일로
29	4월 첫 기획봉사,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하루
32	5월 노래하고, 만들고, 웃고, 어르신들과 함께한 하루
34	6월 포도잎 너머 전해진 온기, 감자밭에 새겨진 농촌봉사 이야기
36	9월 OT 나눔의 첫걸음, 가슴 뛰는 첫 만남!
37	10월 작은 손길이 만든 큰 온기, 연탄봉사로 나눈 따뜻한 하루
40	11월 손 끝에서 피어난 즐거움, 함께한 죽전원 봉사
42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
44	18기 기획분과 소감
45	이벤트분과 활동 내용
47	18기 이벤트분과 소감
48	18기 사무분과 소감
49	1학기 정기봉사
54	2학기 정기봉사
60	12월 함께 만들어낸 우리들의 시간
61	볼런티어 기자단 에디터

백석사회봉사단 소개



구성 및 조직

* 구성

- 백석문화대학교 및 백석대학교 재학생 중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

* 조직

- 단장(사회봉사센터 소장), 부단장(사회봉사센터 직원)
- 임원진: 팀장, 부팀장, 사무분과장, 미디어 분과장, 기획분과장

봉사단 주요활동

- 정기 봉사활동, 기획 봉사활동
- 사회봉사센터 주관 봉사활동
-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봉사단 운영목표

- 본 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적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내외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백석인의 봉사정신과 자긍심을 함양한다.
- 사회봉사센터는 봉사단의 기획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총괄 수행한다.

단원에 대한 특전

- 매 학기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학점제, 인증제, PASS제 적용)
- 해외봉사단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 사회봉사 장학금 지급

백석사회봉사단 상징

백석사회봉사단 심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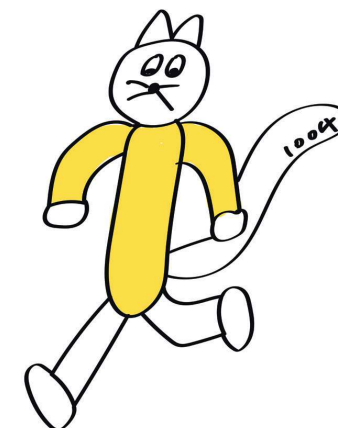
백석사회봉사단의 로고는 백석사회봉사단의 첫 글자 "B"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노란색 하트"로 나비의 날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추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듯이 백석사회봉사단의 활동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백석사회봉사단 일러스트

백석사회봉사단의 일러스트는 나비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고양이의 뒷부분이 나비를 닮았다는 속설에 유래하여 나비효과를 일으키고자 하는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들의 모습을 상징하였습니다.



18기 백석사회봉사단을 추억하며



팀장 소감문 정현욱

안녕하십니까, 백석사회봉사단 18기 팀장 정현욱입니다.

팀장을 맡게 된 이유와 각오

매 기수가 끝날 때마다 작성해 온 소감이지만, 올해 적어보는 소감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백석사회봉사단에 들어왔던 16기 단원 시절의 설렘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의 저는 봉사라는 것이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사봉 안에서 보낸 시간은 제 편협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함께했던 선배님들과 친구들, 동생들에게 받은 조건 없는 사랑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봉사를 하며 만난 분들이 건네준 환한 미소는 오히려 제 마음의 빈 곳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16기 단원으로써 넘치는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며, 저는 “내가 받은 이 과분한 사랑과 행복을 반드시 다시 돌려주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은 저를 17기 임원진으로, 그리고 어느덧 18기에는 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며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한 기수를 이끌어 간다는 중압감 보다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온기를 단원들에게 온전히 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팀장을 맡았던 올해의 백사봉에서 보낸 1년은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값진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백사봉이란?

우리 단원들은 알 수 있었듯이, 백석사회봉사단만이 가진 힘은 ‘함께 성장’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백사봉이라는 곳 역시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과 봉사단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끌어내어 하나의 커다란 선(善)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백사봉만의 매력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였다면 금방 지쳤을 길을 함께였기에 웃으며 걸어올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사봉은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18기에게 하고 싶은 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우리 18기 단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며 저의 부족함을 채워 준 우리 18기 임원진 시리얼 동료 태완이, 예지, 예은이, 진희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건넸던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팀장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백사봉의 발전은 우리 후배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백사봉에서 느끼고 있는 그 행복과 사랑을 후회 없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그 사랑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 주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라는 이름 아래 함께했던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리얼 임원진들의 한마디(제18기 임원들)

부팀장 | 김태완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부팀장 김태완입니다.

18기가 시작되던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렇게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팀장을 선택했던 결정은 제 대학 생활 중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부팀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기수에서는 단원으로서 봉사에 참여하며 '봉사를 잘 해내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봉사를 넘어 봉사단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했기에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서 모두를 이끌어 주며 큰 의지가 되어 준 현욱이 형,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준 예지, 미디어분과장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준 예은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에 인상적이었던 진희까지, 함께한 임원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1년을 보낼 수 있었고, 좋은 기억만 안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모두에게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리얼!

사무분과장 | 김진희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사무분과장 김진희입니다.

2024년, 단원으로 처음 백사봉에 참여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조장 역할을 거쳐 2025년에는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백사봉은 제게 점점 더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의 입장이었지만, 어느덧 선배의 위치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작년에는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고자 노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원의 역할에 임했습니다. 단원과 임원의 시야와 책임은 분명 달랐습니다. 봉사 전반을 고민하고 구성원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책임감과 소통의 중요성, 공동체를 위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생활 중 이처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 경험은 백사봉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었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 지금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백사봉과 함께한 모든 시간과 인연에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경험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분과장 | 주예은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미디어분과장 주예은입니다.

작년에는 단원으로서 소감을 작성했다면, 올해는 임원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어 더욱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올해는 제게 유독 행복과 힘이 함께했던 한 해였습니다. 임원을 지원할 당시에는 자신감 있게 도전했지만, 막상 역할을 맡아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생각보다 큰 책임감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사진 촬영부터 기사 작성까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야 했고, 늘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제 속도에 맞춰 임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8기를 시작하던 저는 미숙했지만 이 시간을 지나는 지금의 저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느낍니다.

1년 동안 늘 묵묵히 따라와 주고 응원해 준 미디어분과원들 그리고 18기를 함께 이끌어 온 시리얼 임원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으로 활동하며 누군가를 이끄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지금 느끼는 뿌듯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18기 백사봉 정말 고마웠어요!

기획분과장 | 이예지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기획분과장 이예지입니다.

17기 총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임원진을 지원했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18기의 끝을 앞두고 있어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기획봉사 기획과 관리부터 봉사단 운영까지 임원으로 활동하며, 16.5기부터 18기까지 약 2년을 백사봉과 함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는 단원이 아닌 임원의 입장으로 활동하며 가장 뜻깊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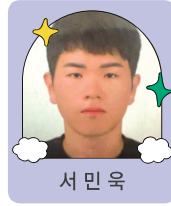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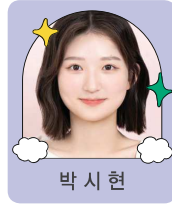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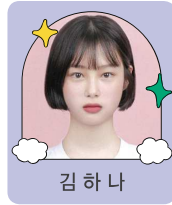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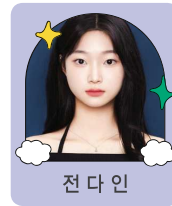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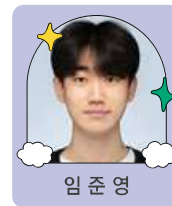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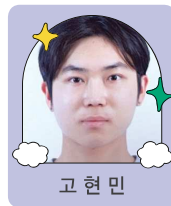
17기 기획분과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8기 기획분과장을 지원하게 되었고, 처음 기획봉사를 진행할 때는 모든 과정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나씩 진행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제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열심히 참여해 준 단원분들과 함께 도왔던 기획분과원들 덕분에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으로서 백석사회봉사단에서 활동할 수 있어 매우 행복했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도움을 주신 소장님, 과장님, 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임원진과 18기 단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8기 단원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사봉은 사랑입니다!



18기 백석사회봉사단 단원소개



3월 OT 서로를 믿고, 더 나은 내일로



기자 주예은

2025년 3월 31일 본부동 103호에서 백석사회봉사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18기의 첫 활동인 만큼 모두가 참여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진행은 18시 단원들 집합을 시작으로 18:00~18:30 발대식, 18:30~19:00 식사 및 정리, 19:00~20:00 오리엔테이션 진행, 20:00~20:30 단원들의 자기소개로 마무리 하였다.

18기 백석사회봉사단의 첫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리엔테이션은 백석사회봉사단의 전체적인 내용과 봉사활동 계획, 조별 봉사활동 기관 소개 등 앞으로 18기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일들에 대한 소개로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봉사센터의 소장님을 포함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모두가 처음인 백석사회봉사단 18기로서 설렘과 기대를 안고 시작하는 순간이다. 신인 단원들뿐만 아니라 임원진과 기존 단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즐겁고 의미 있는 백석사회봉사단을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앞으로 백석사회봉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 속에 18기 오리엔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4월 기획봉사 첫 기획봉사,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하루

기자 차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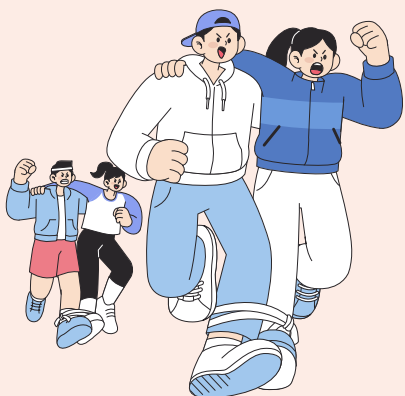
2025년 4월 26일, 백석사회봉사단이 첫 기획봉사로 '하늘꿈이자라는집'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아이들과 백사봉 단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봉사는 아이들과 단원들이 조를 이루어 친목을 다지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건돌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게임을 통해 아이들과의 친밀감을 높였으며, 이어서 만들기 부스(손거울 만들기, 딱지집기), 전통놀이 부스(링 던지기, 딱지치기), 체육 부스(림보, 댄스바디볼, 줄넘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물 이어달리기는 공기저항 풍선 달리기, 2인 3각, 훌라후프 돌리기, 쪽지 미션 수행, 달리기 등의 코스로 구성되어, 아이들과 단원들이 하나 되어 협동심을 발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 기획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단원들 역시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025년도 첫 기획봉사였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하루였다. 앞으로 백석사회봉사단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소감 4월 기획봉사

18기 김경빈

4월 기획봉사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진행하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는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괜한 염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별로 수건돌리기를 하며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함께 웃고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다양한 놀이와 점심시간, 야외에서의 비눗방울 놀이는 아이들의 밝은 반응 덕분에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스 활동 중에는 아이들이 특히 체육 부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장애물 이어달리기에서는 열심히 달렸음에도 1등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함께 뛰어놀던 순간은 봉사라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하는 즐거움과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다음에도 이런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기 김태희

봉사단에 들어온 후 첫 기획봉사로 아이들과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만났지만 아이들은 모두 활발하고 사랑스러워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수건돌리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놀며 저 역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웠고, 비눗방울을 불고 사진을 찍으며 정이 깊어졌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봉사단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부스 활동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자진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얻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이들보다 제가 더 아쉬움을 느낄 만큼 정이 들었고, 이번 기획봉사는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간, 보람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7기 정은교

4월 기획봉사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팀으로 나누어 수건돌리기 게임을 하며 활동을 시작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야외로 나가 맑은 날씨 속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즐기며 꽃과 자연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딱지 만들기, 거울 만들기, 림보, 줄넘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에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했고, 마지막 장애물 이어달리기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함께한 시간 동안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은 아쉬웠지만 이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5월 기획봉사 노래하고, 만들고, 웃고, 어르신들과 함께한 하루



기자 장민진

2025년 5월 31일, 백석사회봉사단은 두 번째 기획봉사로 천안에 위치한 금빛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봉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봉사활동은 센터 내 외부 청소로 시작되었다. 단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구석구석 청소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청결한 환경을 정비했다. 이어서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향상과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는데, 간단한 체조 활동을 통해 몸을 풀고, 홀로그램 아트 만들기 및 부채 만들기 같은 손작업 활동으로 창의력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야외에서는 단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즐기며 마당에 웃음꽃을 피웠다. 비눗방울을 따라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들이 준비한 노래 공연이 펼쳐졌다. 단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곡을 통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고, 어르신들은 큰 박수와 함께 호응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함께 만들었다.

이번 두 번째 기획봉사는 단원들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단원들은 어르신들의 삶에 잠시나마 기쁨과 활력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봉사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5년의 초여름, 백석사회봉사단과 금빛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가 함께 만든 이 하루는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소감
5월 기획봉사

18기 배가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천안 금빛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청소 및 말동무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센터에서 평소 손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단원들과 함께 청소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음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어르신들과 함께 부채를 만들고 말동무를 해드리고, 장기 자랑을 진행함으로써 지루한 일상 속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하루를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각 가정에 계신 부모님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주일에 웃음이 되기를 바라며 5월 기획봉사 소감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기 구예린

지난 5월, 기획봉사로 금빛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관 내부를 청결하게 청소하고, 함께 만들기 활동과 스트레칭을 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하며 이곳이 어르신들께 단순한 시설을 넘어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오히려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는 저의 작은 노력이 타인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8기 남희주

5월 기획봉사로 천안 금빛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환경 정화와 미술 활동,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센터 곳곳을 청결하게 청소하며 어르신들께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미술 활동 중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하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은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고생한다"라며 건네주시는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통해,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행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봉사는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백석사회봉사단으로서 가는 곳마다 따뜻함을 전하며,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기획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6월 농촌봉사 포도잎 너머 전해진 온기, 감자밭에 새겨진 농촌봉사 이야기

기자 김주아

202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천안시 입장면 기로1리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푸른 자연 속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농장의 일손을 돕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작년과는 다르게 포도밭 이외에도 감자밭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함께하며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포도밭에서는 포도 가지치기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봉투 씌우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감자밭에서는 비닐을 걷고 직접 감자를 캐는 등 보다 활동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시원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덕분에 모두가 힘을 내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회관 옥상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바비큐 파티를 열어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사진 찍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벤트분과에서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덕분에 단원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시간을 보내었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임원진의 정성 어린 준비와 더운 여름날에도 지친 기색 없이 서로 도우며 일하는 단원들 덕분에 이번 농촌 봉사활동이 여름날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겨질 수 있었다.



18기 최수빈

무더운 햇볕이 내리쬐던 6월 말, 백사봉 단원들과 농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농촌봉사는 단순히 제게 '수확'이 목적이 아닌 '심기'의 가치를 가르쳐 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알의 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과 기다림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모든 정성들이 모여 재배되는 과정을 이번 농촌봉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단원 모두가 함께 했기에 포도밭의 흙냄새와 포도농장주분들의 미소, 함께했던 웃음은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몸은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을 얻어 갈 수 있게 해 준 백사봉에 소속되어 있어 행복함과 동시에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18기 장명환

봉사단에 들어온 후 두 번째 봉사로 1박 2일 농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당일 봉사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조금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대로 팀이 나누어졌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점점 손에 익으면서 일의 속도도 붙었습니다. 봉사라는 게 단순히 돕는 일이 아닌, 몸을 움직이며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가득한 학교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농촌이 나오는 것처럼 시선을 넓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을 더 잘 살피고 작은 일이라도 직접 참여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기 김은채

1학기의 마지막 봉사로 농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봉사를 마친 후 느낀 뿌듯함과 성취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포도가 자라기까지 세심한 손길과 꾸준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농사일의 소중함과 농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순간들이 많았고, 함께 흘린 땀만큼 백사봉 단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억이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듯이 앞으로의 백사봉 단원들도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9월 OT 나눔의 첫걸음, 가슴 뛰는 첫 만남!

기자 최호정

2025년 9월 22일 목양관 110호에서 기존 백석사회봉사단 18기 단원들과 새로운 단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백석사회봉사단의 2학기 첫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자리는 새로운 학기를 맞아 단원들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봉사활동의 의미를 다시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은 1800 단원 집합을 시작으로 함께 선서 후,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로 진행되었다. 특히, 앞으로 백석사회봉사단의 전체적인 활동 내용과 계획이 소개되었으며, 조별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 단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백석사회봉사단은 2학기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은 신입 단원들의 눈빛과,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기존 단원들의 모습에서 백석사회봉사단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이야기가 엿보였다. 앞으로 이들이 함께 쌓아갈 봉사의 발자취가 지역사회를 넘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단원들 각자의 삶에도 의미 있는 성장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며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10월 기획봉사 작은 손길이 만든 큰 온기, 연탄봉사로 나눈 따뜻한 하루

기자 이예빈

지난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2학기 첫 기획봉사인 연탄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봉사는 성정동 두 팀과 성환을 한 팀, 총 세 팀으로 나누어 17구당 연탄 500장을 전달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른 아침, 단원들은 추운 날씨를 대비해 두꺼운 옷을 단단히 챙겨 입었다. 하지만 막상 연탄을 나르기 시작하자 생각과는 달리 몸이 금세 달아올랐다. 서로 "이제 너무 더워서 겹옷을 벗어야겠다"라며 웃음을 터뜨리던 단원들의 모습은, 추위를 걱정하며 모였던 아침과는 사뭇 달랐다. 단원들의 얼굴에는 열정과 보람이 섞인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무겁게 느껴졌던 연탄 한 장 한 장이 이웃의 겨울을 지켜줄 희망으로 느껴졌다.

처음에는 길고 좁은 골목길에서 한 줄로 서서 연탄을 옆으로 전달하였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옆에 있던 카트를 이용해 연탄을 담고 나르기 시작했다. 덕분에 속도를 높여 연탄을 옮길 수 있었다. 연탄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처음에는 모두 조금 놀랐지만, 단원들은 모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포기하거나 봉사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었다. 서로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며, 웃음과 응원 목소리 속에서 연탄 한 장 한 장을 채워나갔다.

이번 연탄 봉사는 단순히 연탄을 전달하는 활동을 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함께함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소감
10월 기획봉사

18기 최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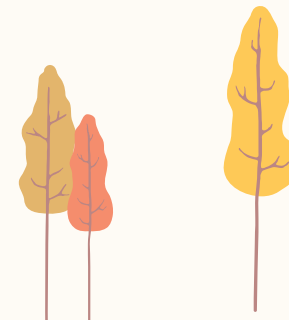
이번 봉사활동은 연탄을 천안 지역의 세 가정을 방문하여 한 가정당 500장의 연탄을 옮겼으며, 단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활동했습니다. 좁은 골목과 무거운 연탄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서로 도와가며 일을 진행하니 점점 수월해졌습니다. 단순히 연탄을 나르는 일을 넘어, 함께 일하며 느끼는 유대감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옮긴 연탄 한 장 한 장이 실제로 도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봉사 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번 연탄봉사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과 나눔의 가치, 그리고 봉사가 주는 보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8기 이유찬

뉴스나 SNS를 통해 연탄봉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지만,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방문한 곳은 골목이 좁아 단원분들과 함께 줄을 이어 손으로 나르고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나고 팔과 어깨가 빠근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단원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단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격려하며 봉사의 보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웃고 힘을 보태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그 순간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18기 조애리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장씩 연탄을 나누어 드리는 팀 봉사였습니다. 우리는 18명이 함께 500장의 연탄을 옮겼지만, 그 가정들에게는 그 연탄이 큰 힘이 되고 울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봉사 도중 업체의 실수로 작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임원들과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함께하는 힘의 소중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과 나눔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11월 기획봉사 손 끝에서 피어난 즐거움, 함께한 죽전원 봉사



기자 황수현

지난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백석사회봉사단의 마지막 기획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봉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천안죽전원의 손길이 되어 드리기로 했으며,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진행된 활동은 마라카스 만들기였다. 가족분들은 준비된 마라카스 공 안에 형형색색의 자갈을 넣어 각자만의 개성이 담긴 마라카스를 만들었다. 만든 마라카스를 열심히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에는 소원카드를 작성해 트리에 거는 시간이 이어졌다. 가족분들은 마음속에 간직해 온 소원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소원카드는 반짝이는 트리에 하나씩 걸리며 주변을 더욱 따뜻하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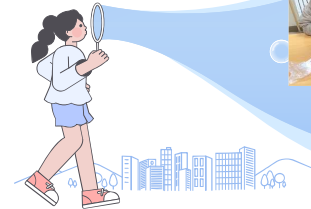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친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가족분들은 박자를 맞추며 손뼉을 치고, 서로 눈을 맞추며 활짝 웃었고,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였다.

야외활동 시간에는 큰 공 굴리기, 산책, 비눗방울 불기, 복주머니 던지기 등의 활동이 준비되었다. 야외활동은 전체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치게 만들었다. 이어서 센터 주변을 함께 산책하며 가을 햇살을 느끼고, 비눗방울을 불자 공기 중에 둥둥 떠오르는 반짝임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족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긴 소중한 시간이였다. 각 활동마다 가족분들의 따뜻한 에너지와 순수한 웃음이 더해져 봉사자들도 또한 그 안에서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소감
11월 기획봉사



17기 장혜정

이번 11월 기획봉사를 통해 죽전원을 방문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죽전원이라 다소 긴장했지만, 가족분들의 밝은 환영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라카스를 만들고 크리스마스트리에 소원을 적는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진행한 비눗방울 불기, 공 굴리기, 모래주머니 던지기 활동 속 가족분들의 해맑은 웃음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 주며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래 남았고, 앞으로의 봉사에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봉사는 주는 사람 이 아닌, 서로가 함께 채워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18기 임준영

이번 11월 기획봉사는 처음으로 죽전원 가족분들을 만나 보는 자리라 조금 긴장한 채로 참여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라 낯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도착하자 모든 분들이 밝게 인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첫 순간부터 마음이 풀렸습니다. 가족처럼 대해 주시는 분위기에 놀랐고, 그 덕분에 더 편안하게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마라카스를 만들고 크리스마스트리에 걸 소원도 적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졌고, 활동 하나하나가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야외로 나가 비눗방울 놀이를 하거나 공 굴리기, 모래주머니 던지기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가족분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환해지고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서로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음에도 이렇게 따뜻한 기억을 남겨 준 가족분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고 돌아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6기 전영주

11월 기획봉사로 오랜만에 죽전원 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마라카스를 만들고 크리스마스트리에 걸 소원도 작성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야외로 나가 비눗방울 불기, 공 굴리기, 모래주머니 던지기 등의 활동을 하며 가족분들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함께 편안해지고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고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고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죽전원 가족분들과 만날 수 있어 더욱 뜻깊었고, 가족분들께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은, 우리가 제공한 작은 정성과 시간이 가족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활동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보여주시는 따뜻한 미소는 단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었던 이번 활동은 단원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서로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

겨울에 온기를 담다, 백석사회봉사단 '사랑 나눔 대축제' 펼쳐



기자 함가희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백석생활관에서 열린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에서 참가자들은 생필품 기프트 박스 400개를 제작했다. 상자 안에는 생필품과 잡곡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성스러운 손편지까지 함께 넣어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완성된 400개의 기프트 박스는 천안 지역 내 3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 가정으로 전달된다.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는 재학생과 교직원, 백석사회봉사단이 매년 연말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3년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시작된 나눔 문화는 수혜자들의 실제 필요에 맞춰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25년에도 지역 사회 곳곳에 도움을 전하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연말 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상자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포장하며, 나눔이 단순 기부나 물품 전달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결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참여 학생들은 나눔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이웃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소감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



18기 고현민

올해 처음으로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행사라 놀랐지만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는 단순히 물품을 정리하고 상자를 채우는 활동을 넘어, 나눔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선물 상자를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이 상자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마지막에 손편지를 넣는 순간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나의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함께 참여한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의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활동 내내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번 참여를 통해 느낀 보람과 뿌듯함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8기 이윤지

2025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는 백석의 연말 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사로, 백사봉 18기 단원뿐만 아니라 재학생, 교직원분들을 보며 생각보다 규모가 큰 행사임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필품 선물 상자를 정성스럽게 제작하고, 상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글자를 꼭꼭 눌러 쓴 손편지를 넣어 포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마무리 테이핑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거의 서투른 솜씨에 자원봉사자분께서 친절하게 테이핑 방법을 조언해 주셨고, 함께했던 단원들의 집중하는 모습과 웃음 짓는 얼굴을 보며 봉사의 취지에 맞는 충만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 일찍 모였는지라 피곤할 법도 했지만,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서로를 북돋아 주며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소양을 쌓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과 수고로움을 느꼈습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행한 이 봉사활동이 누군가의 따뜻한 연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기 임은비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에서 기프트 박스를 포장하며 짧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작업이었지만, 상자를 받게 될 분들을 떠올리니 자연스럽게 손길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이 물품들이 누군가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습니다. 포장 과정은 생각보다 세심함이 필요했고, 주변에서는 서로 필요한 것을 챙겨 주며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18기 단원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니 박스를 채웠다는 생각보다 작은 응원을 전했다는 마음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나눔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 시간을 내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장한 상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더해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꾸준히 참여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기 기획분과 소감



기획분과장 이예지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기획분과장 이예지입니다. 1년 동안 기획분과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어려운 순간도 정말 많았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4월 기획봉사를 준비할 당시에는 기관 섭외부터 물품 구매, 활동 진행,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던 날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관 섭외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아직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 기획봉사를 마쳤을 때, 후련한 마음과 동시에 아쉬움도 함께 남았습니다. 하지만 단원분들의 피드백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저 역시 많이 성장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매번 기획봉사를 큰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열심히 함께해 준 단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획분과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봉사 전후로 많이 피곤했을 텐데도 항상 끝까지 남아 정리해 주고 힘써 준 기획분과 단원들 덕분에 저 역시 무사히 제 역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획분과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뜻깊은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준 백석사회봉사단 18기 단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획분과원 김하나

봉사단 기획분과원으로서 1년간 활동하며 협업의 중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과장의 기획 방향에 맞춰 구성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획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필요위주로 많은 역할에 충신했습니다. 특히 정가봉사와 차별화된 즐거운 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분과에 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품 이동과 환경 정리 등 실무를 뒷받침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고, 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는 협업의 가치를 배웠으며, 조직 내 필요위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1년간의 활동은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좋은 동료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은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기획분과원 최혜연

기획분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이 진행되기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에 띄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그 의견이 봉사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며 기획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여러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이는 오히려 기획의 깊이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봉사가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벤트분과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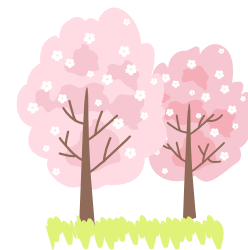


* 1학기 활동

① 첫 번째 활동

☼ 벚꽃 이벤트

4월 봄맞이 벚꽃 이벤트를 통해 단원들과의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8명씩 5조로 나누어 각자 컨셉을 정해 사진을 찍고 투표 후 1등에겐 상품을 지급하였다.



② 두 번째 활동

☼ 오친소(오월의 친목)을 소개합니다.)

5월에는 단원들끼리 더 친해지길 바라는 취지로 친목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각 조별로 사진도 찍고 밥도 먹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③ 세 번째 활동

※ 농촌봉사 레크리에이션

6월에는 열심히 농촌봉사를 마친 후 저녁시간에 단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이벤트분과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였다. X맨을 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니 색달랐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 2학기 활동

① 첫 번째 활동

※ 빙고는 핑계고

8명씩 5조로 나누어 빙고를 완성해 나가는 친목 활동을 진행하였다. 운동, 공부, 밥 먹기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② 두 번째 활동

※ 11월 MT

11월에는 18기 단원들끼리 MT를 갔다. 이벤트분과원들이 준비한 실내 프로그램을 통해 단원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총 5개의 게임을 진행하였고 순위를 나누어 그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였다.



18기 이벤트분과 소감



이벤트분과장 김태완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이벤트분과장 김태완입니다. 이벤트분과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단원들이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 분과장을 맡았을 때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많은 인원을 이끌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쉽지않은 않았습니. 하지만 '단원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농촌봉사와 MT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혼자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준 이벤트분과원들 덕분에 더 완성도 있는 활동을 만들 수 있었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해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준 이벤트분과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18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벤트분과장으로서의 경험은 앞으로 어떤 공들임 안에 있더라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모든 단원들과 분과원들에게 감사하며, 이 소중한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벤트분과원 김보영

이벤트분과원으로 활동하며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 조율과 준비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분과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하나의 행사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비한 이벤트로 참여자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아이디어와 역할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협력과 책임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이번 활동은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벤트분과원 전다인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전다인입니다. 이번 학기 처음 봉사단에 소속되어 이벤트분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역할이 부담스럽고 걱정도 많았지만, 활동을 통해 점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MT에서 개인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단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이벤트분과가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느꼈습니다. 분과원들과 협력해 활동을 완성하는 과정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성격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도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18기 사무분과 소감



사무분과장 김진희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사무장 김진희입니다. 1년 동안 사무장 역할을 맡아 활동한 시간은 책임감과 저의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봉사단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역할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장으로서 MT를 포함한 단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구매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인원과 일정, 예산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을 요구했고, 특히 단체 행사의 경우 작은 물품 하나의 누락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러 번 확인하며 꼼꼼히 준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성과 세심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신중한 태도와 신뢰는 작은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의 역할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봉사단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꼼꼼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의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분과원 장혜정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장혜정입니다. 저는 사무분과원으로서 MT 물품 선정과 회의록 정리 등 봉사단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단순 보조라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봉사단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산과 만족도를 고려해 물품을 비교하며, 꼼꼼함이란 성격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된 태도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활동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해 완수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던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분과원 주예린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사무분과원 주예린입니다. 저는 사무분과원으로 활동하며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물품 관리를 넘어 업무에 따르는 책임감, 문제 해결 및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무 업무가 단원들의 봉사활동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남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소속감은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1학기 정기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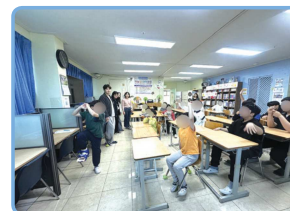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

우리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45명의 아동들이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종사자들은 흠과 거름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 소감

'백석'이라는 단어도 들어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수년 동안 백석사회봉사단과 인연을 맺으며 다양한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백사봉'과 소중한 인연은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였던 마음들은 활동이 끝난 뒤에도 '백사봉'을 추억하게 되는 마음으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학기 다시 만남을 기대하며 한 학기 동안 고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담아 활동 소감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 후기

2025년 1학기 백석사회봉사단의 월요일 봉사는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략 15명의 아이와 8명의 단원들과 함께했습니다.

8주 동안의 봉사를 계획하며 작년부터 아이들이 더 즐겁게 할 만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작성해 주었던 요리 활동으로 샌드위치와 아이스크림 만들기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활동을 주로 넣었고, 좋은 꿈만 꾸라는 의미로 다 같이 드림캐처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진행했던 그

림 그리기 활동과 로켓 발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달에 맞는 활동들을 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주었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직접 기획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열심히 기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동에 보람차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조금씩 부족한 조정이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 준 단원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정기봉사를 많이 참여해 본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저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한 학기를 보냈을 것 같은데, 가현 언니, 예린 언니 덕분에 저에게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조장 은채, 무거운 짐 들어준 준수 오빠, 가희, 그리고 이번 학기 처음 들어온 동우, 희진이 모두 부족한 저를 믿고 빠짐없이 봉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웃는 얼굴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신 하늘곰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8주 동안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저 역시 이번 봉사활동이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웃으면서 또 만나는 날이 있길~ (17기 박시현)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 멘토링, 문화 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등 대학생들이 아동들과 함께 활동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아동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들에게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관 소감

2025년 1학기 백석사회봉사단과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여러분에게도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에서의 활동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봉사 후기

백석사회봉사단 18기 1학기 조장을 맡으면서 제 꿈에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조원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라면 리더십이 부족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좋아했는데, 조장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더 기를 수 있었고, 친화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조장이었지만 잘 따라와 준 화요일 조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백석사회봉사단 선생님들, 임원, 단원들에게도 감사 전하고 싶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에 들어온 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었고, 다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6기 서민욱)



샘물지역아동센터

본 샘물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휴식과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행복감 및 삶의 만족, 학업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기관 소감

이번 학기 백석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 센터에 큰 의미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바쁜 학업 중에도 시간을 내어 꾸준히 참여해 준 학생 여러분 덕분에 우리 기관은 한층 더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아동들에게 있어 매우 필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언제 오시나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덩달아 센터 선생님들도 행복했습니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심하여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시고, 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 봉사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의 열정과 성실함은 우리 센터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백석사회봉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체험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봉사 후기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샘물지역아동센터 조장을 맡게 되어 설렘과 동시에 많은 긴장이 있었지만, 직접 한 학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경험은 제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한 프로그램 기획은, 예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과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했기에 결코 쉽지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활동 중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모든 수고를 잊게 해주었고, 그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단원들은 성실하게 활동에 임해 주고, 신입 단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정말 든든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정기봉사에 참여한 신입 단원들 역시 긴장 속에서도 저의 활동 이념인 '행복'과 '즐거움'을 잘 실천해 주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원들이 아이들과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샘물지역아동센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의 정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7기 한누리)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천안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로, 성정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와 권리 증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등 청소년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음료를 하루에 한 잔씩 무료로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성정 청담음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상담, 급식 등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관 소감

백석사회봉사단 소속 대학생 선생님 8분께서 주차별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희 기관과 꾸준히 연계하여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 후기

성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백석사회봉사단 활동 중 또 한 번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이 깔끔하고 잘 갖춰져 있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상자분들이 활발하고 밝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매 활동마다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고, 무엇보다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원들과 대상자분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즈음 활동이 마무리되어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정기 봉사활동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147 최영서)



천안죽전원

천안죽전원은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일상생활(청결, 식사, 청소, 운동, 치료)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복지관, 식당, 미용실,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구에 맞게 다양한 직업활동(직업훈련,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 소감

천안죽전원에 백석사회봉사단은 밝은 에너지와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인연이자 단체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기관에 방문해 주셔서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있음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원분들과 저희 이용자들이 운동, 미술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항상 밝은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1학기 봉사활동이 끝나는 것에 큰 아쉬움이 있지만, 2학기 때 다시 만날 시간이 기대됩니다. 대학교 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빠지지 않고 항상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 후기

저는 1학기 죽전원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죽전원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조장은 처음이어서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 준비와 진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조원들에게 미안했고, 가족분들께도 죄송했습니다. 조원들 중에는 신입 단원도 많았지만 모두 잘해 주었고, 조원들 덕분에 봉사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 죽전원 활동을 하면서 더욱 가족분들에게 정이 들었던 시간이었으며, 조장을 하면서 조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들지만 보람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학기는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죽전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17기 고은정)



2학기 정기봉사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

안녕하세요!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 생환복지사입니다.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는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아이들이 적은 지역에 있어 다소 시골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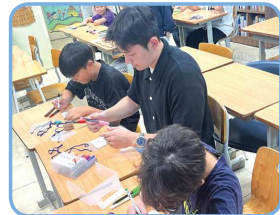
기관 소감

백석사회봉사단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만큼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한 봉사팀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즐거이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해 주는 봉사단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 주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봉사 후기

2학기 하늘꿈이자라는집 조장을 맡게 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부담이 컸고 불안함이 있었습니 다. 저는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리더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조장 역할로 1주차 활동을 진행 했을 때, 부담감과 걱정으로 인해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조장 에 대한 걱정을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중 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가 늘어날수록 저 스스로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미안하지 않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 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주차가 지날수록 저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점점 더 만족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저 역시 활동에 대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활동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는 아쉬움과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 좋은 활동과 재미있는 활동으로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마지막 활동이자 마지막 조장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었던 조장이었지만, 지금은 더 욕심이 생기고 다른 활동도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 니다. 조장 활동을 통해 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고, 조장을 맡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원으로서 했던 봉사활동과 조장으로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분명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활동으로 더 재미있고 뜻깊은 추 억을 만들 수 있었기에, 조원으로 활동했을 때보다 조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들에 게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조장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17기 임준수)

디딤돌지역아동센터

성거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 및 심터 공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아동들에게 꿈을 제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비전스쿨을 성거 침례교회 부설로 운영하던 중,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을 보육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디딤돌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소감

8주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를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번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 역시도 내년 에 또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26년에도 방학과 시험기간을 제외한 매주 저희 센터에 방문하여 주셔서 디딤돌 아이들을 위해 흥미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봉사 후기

처음 조장을 맡게 되면서 걱정이 먼저 앞섰지만 단원들과 함께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며 아이들과 봉사를 이어갔던 과정은 저에게 큰 경 험이었습니다. 계획서를 붙잡고 머리 싸매던 게 엇그제 같은데 8주가 숨 쉬듯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이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이라 보니 말도 잘 안 듣고 뛰어다니기 바빠, 단원들과 아이들을 중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족한 조장을 옆에서 많 이 도와준 디딤돌 단원들에게 너무 고생했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8기 문정민)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교육·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 돌봄 기관입니다. 초등 전 학년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머물며 다양한 학습 활동과 놀이, 문화체험을 통해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마음 편히 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은 물론, 예술·체육·창작 활동 등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이들이 보다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백석사회봉사단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풍(단단히, 풍부하게 자란다)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교육·체험 활동이 조화롭게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즐거움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소감

백석사회봉사단과 함께한 이번 정기봉사는 단순한 기관·봉사자의 만남을 넘어, 지역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낯선 활동에 도전하는 과정마다 봉사단 여러분의 격려와 인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활동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놀라게 드러났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다정하게 지도해 주시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준 봉사단의 태도는 아이들의 표현 능력과 자존감 향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 활동이나 공동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신 협동과 배려의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서로 돕는 공동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교육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활동을 통해 즐거워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준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아이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주고 싶지만,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백석사회봉사단의 꾸준한 참여는 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아이들에게는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한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품을 넓히는 귀중한 실천이었습니다. 매주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그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아이들 안에 좋은 기억과 긍정적인 정서로 남을 것입니다.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큰 울림이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만들고, 함께 뛰었던 그 시간의 가치와 온기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기쁨이 늘 함께하길 바라고, 소중한 8주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는 여러분과의 인연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 봉사 후기

이번 2학기 정기봉사 조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장은 단순히 팀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예산을 고려한 활동 계획부터, 필요한 준비물 관리 등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1학과 2학기 모두 조장을 지원한 이유는 성장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한 이번 정기봉사에서 저는 아이들과 라파를 형성하고, 만들기·꾸미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 교육과 국군의 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이 향상하는 모습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장으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보는 동시에,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준비했던 시간도 제게도 큰 성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 백석사회봉사단 수요일 조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푸른아이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과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아이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공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8주 동안 함께 웃고, 때로는 슬프고, 아쉬운 감정까지 함께 나눴던 우리 유찬이, 가현이, 예린이, 수현이, 진희, 희주, 애리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더 좋은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봉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며,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정기봉사라고 생각합니다. (17기 한누리)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천안시성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천안시성정청소년문화의집 소속으로 성평등가족부와 충청남도, 천안시의 지원을 받아 관내 초등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 및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모집 받아, 방과후 시간대에 학습 지원, 체험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연 4회 주말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 소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아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성 형성에도 노력을 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경험은 물론 특별한 추억까지 얻을 수 있던 시간이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봉사 선생님들께서 모두 친절히, 적극적으로 수업 준비와 진행에 임해주셔서 청소년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봉사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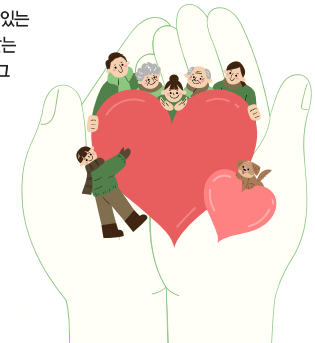
봉사 후기

2학기 목표일 조장을 맡으면서 저는 8주 동안 성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첫날 만난 아이들은 밝고 에너지가 넘쳤고,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여러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카나페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재료를 만지며 즐거워하고, 작은 완성에도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함께 정이 쌓여서인지 마지막 활동 날에는 아쉬움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장으로서 매주 1시간의 활동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아이들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활동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제가 아이들로부터 순수한 열정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8주간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해 준 단원들, 아이들, 그리고 센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8기 차여경)



천안죽전원

천안죽전원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총 41명의 이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설입니다. 현재 저희 천안죽전원은 이용자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프로그램 부분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 소감

매년 1학기, 2학기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해주시고 하반기에 많은 봉사단원 분들이 방문하여 봉사를 진행해 주시는 백석사회봉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와 미소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시고 천안죽전원 가족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어 주어 감사합니다.

봉사 후기

2학기 동안 죽전원에서 성인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의 조장을 맡으며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매주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책임감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속도와 특성에 맞추어 소통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접기, 비눗방울 놀이, 실내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 활동을 준비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협력하여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웃음과 긍정적인 반응은 조장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넘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의미 있는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봉사에 임하겠습니다. (18기 강동우)

12월 총회 함께 만들어낸 우리들의 시간



기자 주예은

2025년 12월 19일, 백석대학교 본부동 103호에서 백석사회봉사단의 자체 평가 및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18기 단원 전원이 참석하여 올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봉사단을 이끌어갈 내년 임원진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는 18기 임원진의 활동 보고로 시작되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봉사활동과 기획봉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공유되었으며, 이벤트분과와 미디어분과의 주요 활동과 성과도 함께 보고되었다. 또한 사무부과에서는 한 해 동안의 예산 사용 내역을 안내하며 봉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활동 보고를 마친 후에는 졸업 단원과 중단 단원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각자의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하며 지난 활동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정기봉사를 이끌어 온 조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단원 모두가 함께해 온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후반부에는 차기 임원진 선출이 진행되었다. 후보자들은 각자 준비해 온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밝혔으며, 단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새롭게 선출된 임원진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총회의 마무리를 장식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18기 단원들이 함께한 활동과 추억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19기의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보ランティア 기자단 에디터

• 미디어분과장 주예은



안녕하세요. 미디어분과장 주예은입니다. 벌써 18기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잘 믿기지 않네요. 재밌고 힘들었던 한 해였던 만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사 쓰는 것도 서툴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서툴러 하나를 완성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도, 머리에도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새 작업 속도도 빨라지며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분과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활동을 거듭할수록 분과원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만큼 업무를 나누는 일도 점점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18기 단원 모두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 기록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목표를 이루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어 오히려 그 기억들이 더 오래 남고 단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볼런티어를 작성하며 그때 담지 못했던 순간들을 조금이나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분과장이라는 직책에 부담을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기억보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늘 웃고 있는 우리 단원들과 대상자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의 입가에도 미소를 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디어분과원 수현 언니, 가희, 주아, 호정아, 예빈이, 그리고 조장을 하면서 함께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 함께했던 여경이까지. 1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분과 최고!!

• 미디어분과원 이예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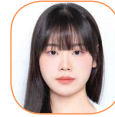
백석사회봉사단 미디어분과원으로 1년간 활동하며 봉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단원들이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을 직접 사진과 영상으로 그 순간을 담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사 작성과 카드 뉴스 제작을 통해 단원들의 진심 어린 활동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런티어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디어분과원 참가희



안녕하세요. 17기 참가희입니다. 백사봉 단원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사진 찍으며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열정과 노력, 함께하는 순간들을 담아낼 때마다 봉사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원들의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가 담겨, 볼런티어는 더욱 빛났습니다.

• 미디어분과원 최호정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8기 최호정입니다. 1년 동안 미디어분과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원들의 봉사하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단원들의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며 사진을 찍는 일에 뿌듯함을 느낀 날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단원들의 볼런티어 소감을 정리하면서, 단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봉사에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볼런티어를 읽으며 올해의 봉사단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 미디어분과원 황수현



미디어분과원으로 활동하며 카드뉴스 제작, 기사 작성, 사진 촬영을 맡았습니다. 단순 기록이 아니라 봉사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커졌고, 팀원들과 협업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미디어분과원 김주아



안녕하세요. 미디어분과 18기 김주아입니다. 봉사 현장에는 늘 놓치기 아쉬운 찬란한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단원들의 열정과 어른신들의 미소를 제 시선으로 직접 포착해 영상과 사진에 담는 과정은 저에게 큰 보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록한 결과물을 통해 단원들이 소중한 추억을 언제든 다시 꺼내 볼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봉사의 감동이 생생하게 이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기록하겠습니다.

